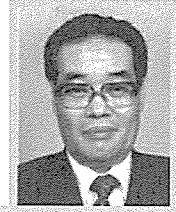


노인과 컴퓨터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사)인터넷집현전/회장 유경희

인터넷집현전에서는 작년도에 2200명의 노인을 상대로 "노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나름대로 보람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95%이상의 피교육자들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환경이 자택에 구비하지 못하여 실습시간의 절대 부족으로 교육의 효과를 기대만큼 달성하지 못하였다.

자택에 아예 컴퓨터가 없거나 있더라도 자녀들의 소유물로 눈치를 보면서 빌려 쓰는 입장의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는 손자녀석이 학교에 갔다와서 컴퓨터를 켜면서 할아버지에게 한다는 말이...

"할아버지! 내 컴퓨터를 만졌지요?"라고 원망하는 말투로 말을 걸면 할아버지가 쥐구멍을 찾아야 할 지경이라고 한다.

어느 할아버지 피교육생에게 말했다.

"택의 자녀분들이 할아버지에게 컴퓨터를 사줄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얼마나 좋을가요? 형편이 안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자녀분들도 계실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

밖에 안되는 어버이날에 자녀들이 삐죽 들여다보고 용돈으로 10만원짜리 수표한장을 달랑놓고 바쁘다면서 나가버리는데 요즘의 젊은 이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요?

글쎄, 가령 컴퓨터 한대가 백만원이라고 친다면, 자녀들이 받을 내고 나라에서 4분의 1을, 컴퓨터 회사에서 4분의 1을 보조하여 준다면 자녀들의 부담도 덜고 효도도 하고 얼마나 좋을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인정보화 교육을 아무리 많이 한들 자택에서 인터넷도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

"요즘의 3-40대 자녀를 키우는 자녀들은 자식을 위하여 50만원을 쓰는 것은 아주 쉽게 하지만 부모를 위해서 단돈 5만원을 쓰는 것도 아깝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는 1대 10의 비율이 평균효도 지수라고 한다면 노인들은 너무 섭섭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3대 7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평균효도지수는 0.3 이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부모공양 + 자녀공양 = 공양총경비에서 부모공양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해 보았습니다. "

40여년전,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할아버지가 손자들 귀엽지만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대할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한탄하는 말인가 보다. 조모님께서 혹시 필자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는데 손자인 내

가 그렇게 대하지 못했던 것을 한탄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할아버지 세상에도 아는척, 가진척, 잘난척...적합한 표현을 아니지만 삼척동자가 많다. 절대로 안라그쳐 주는 분도 계시고, 몰라도 공손하게 물어보려고 하지 않는 분도 계신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강조해야 할 미덕은
"알면 친절하고 모르면 겸손하라."